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최근 경기동향을 중심으로 -

신 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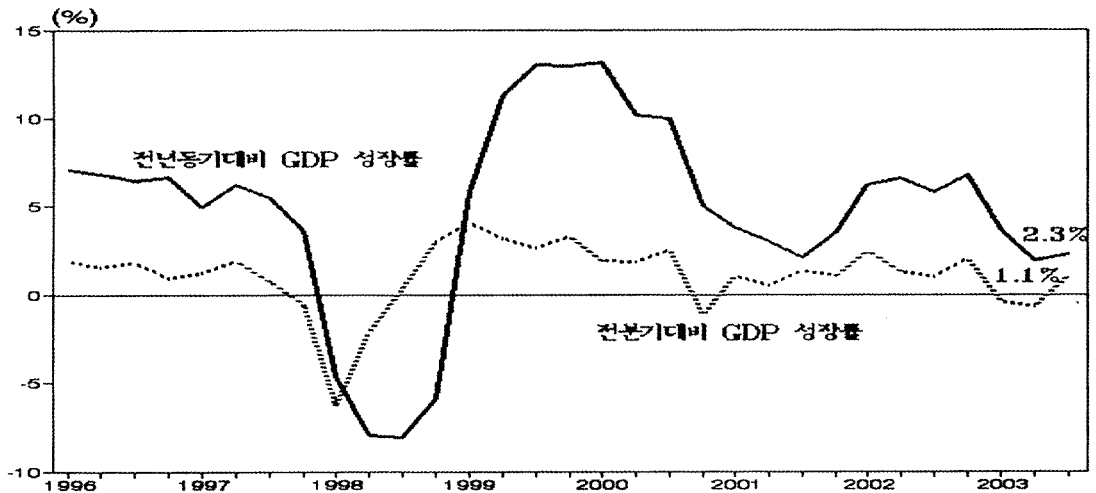
(KDI 거시경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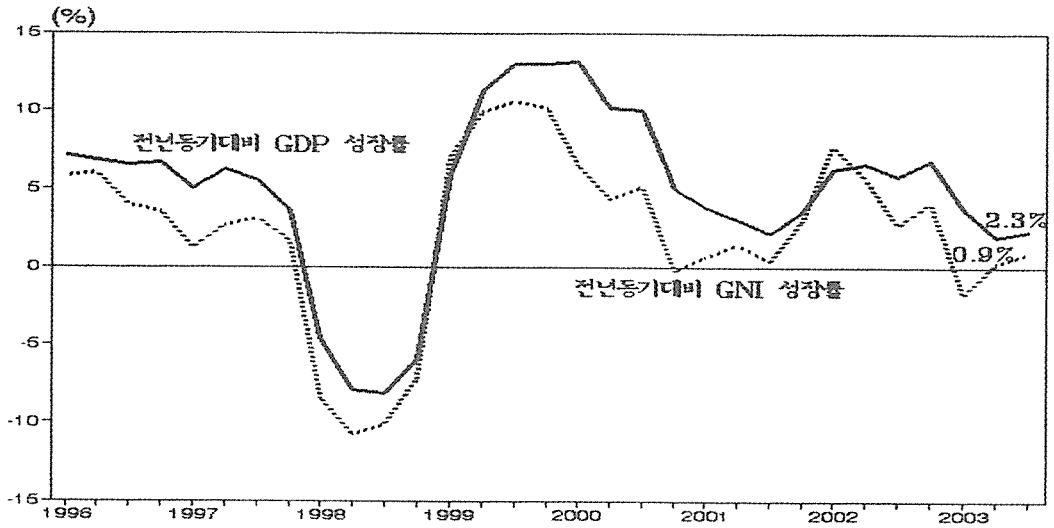
I. 최근의 경제동향

현재 우리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GDP)은 금년 3/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3% 성장하고, 전분기 대비로도 1.1%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 동안의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전하였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년동기대비 3/4분기에





0.9% 증가하여 2/4분기 0.2%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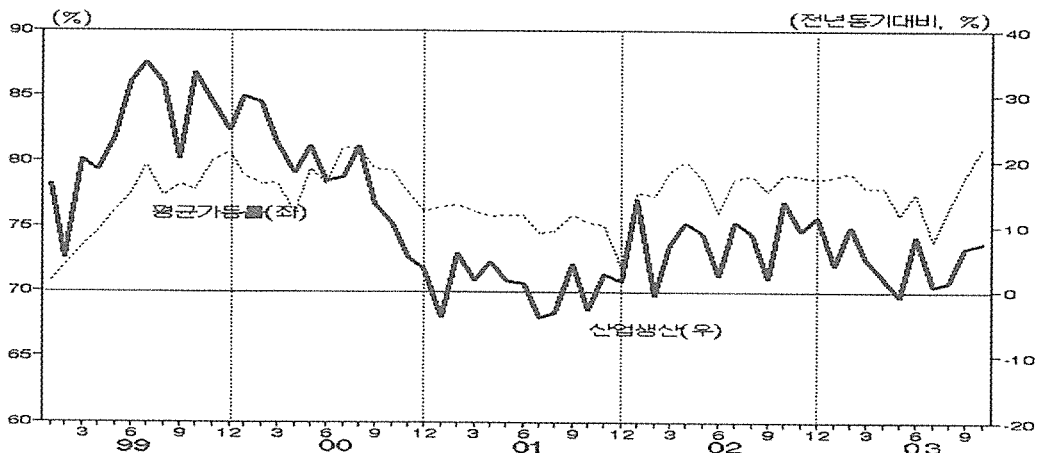
산업생산은 10월중 수출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여 전월(6.7%)에 이어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계절조정 전기비로도 8월 이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등 경기관련 지표들도 개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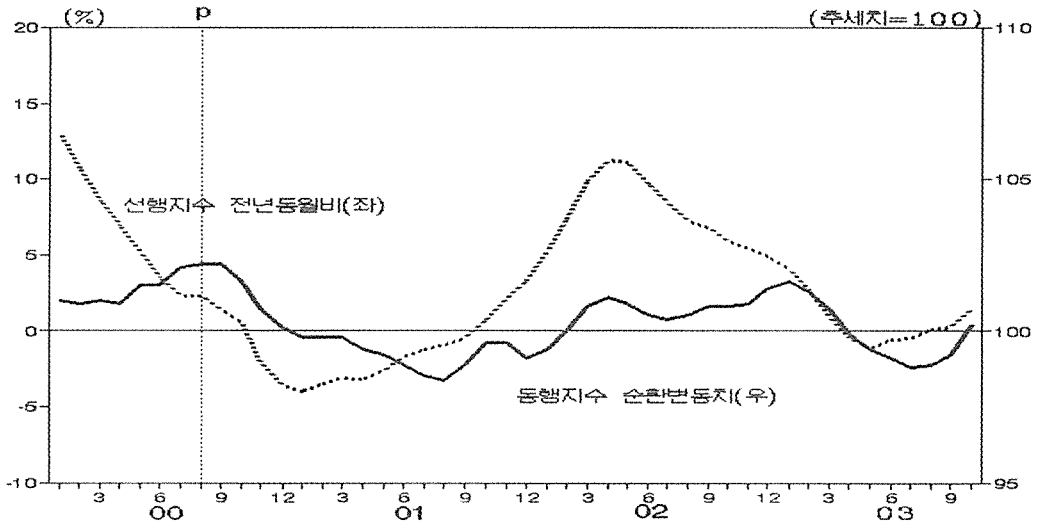
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을 저점으로 10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이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10월중 전월에 비해 1.3%p 상승하여 지난 7월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산자재품출하의 경우 10월중 수출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6.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내수출하는 0.7%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

〈산업생산 증가율 및 평균가동률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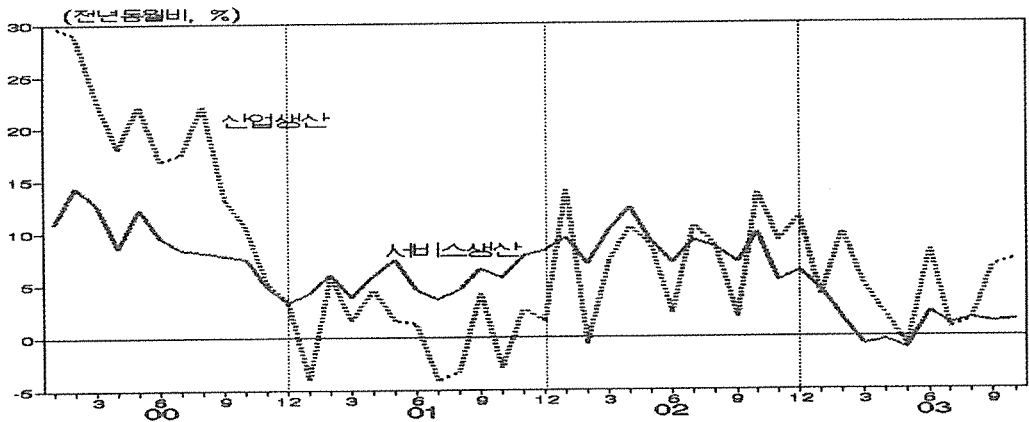
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수침체는 서비스생산이 10월에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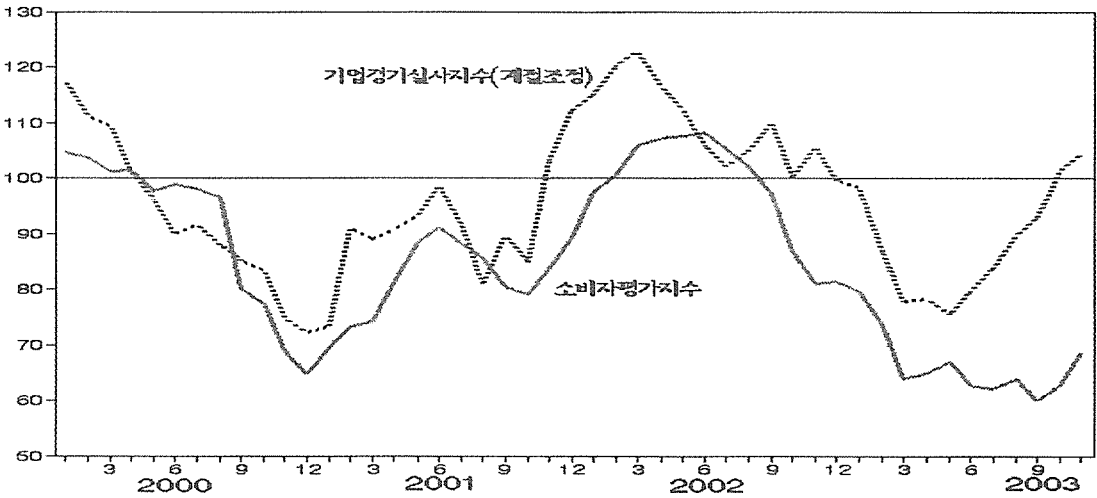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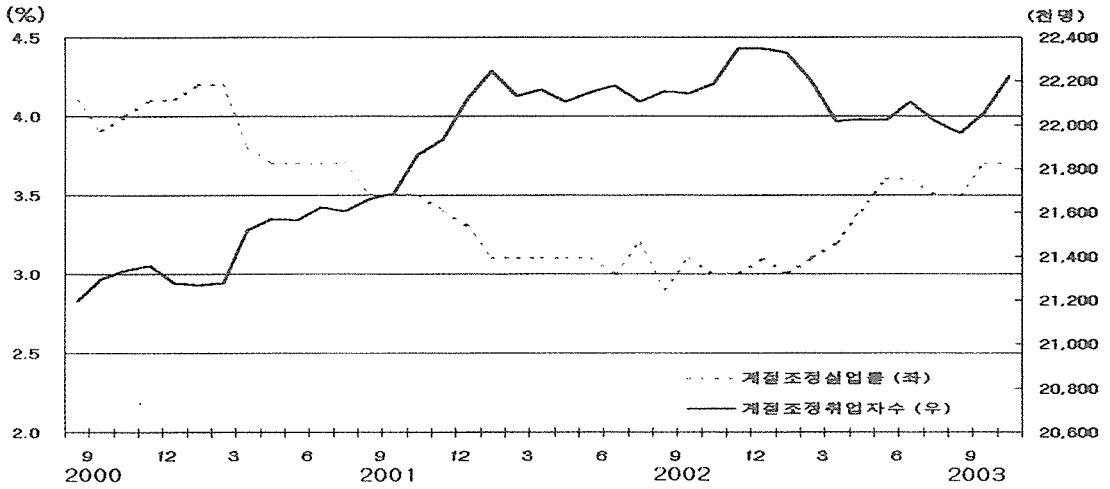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침체도 지속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월중 실업률은 3.4%를 기록하여 전월(3.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계절조정실

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취업자수가 11월중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지난 4월 이후 감소세에서 반전하였다.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11월중 68.4를 기록하여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기업실사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변화 추이〉

고 있으며, 전경련의 기업실사지수도 11월중 98.9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계절조정지수의 상승세는 지난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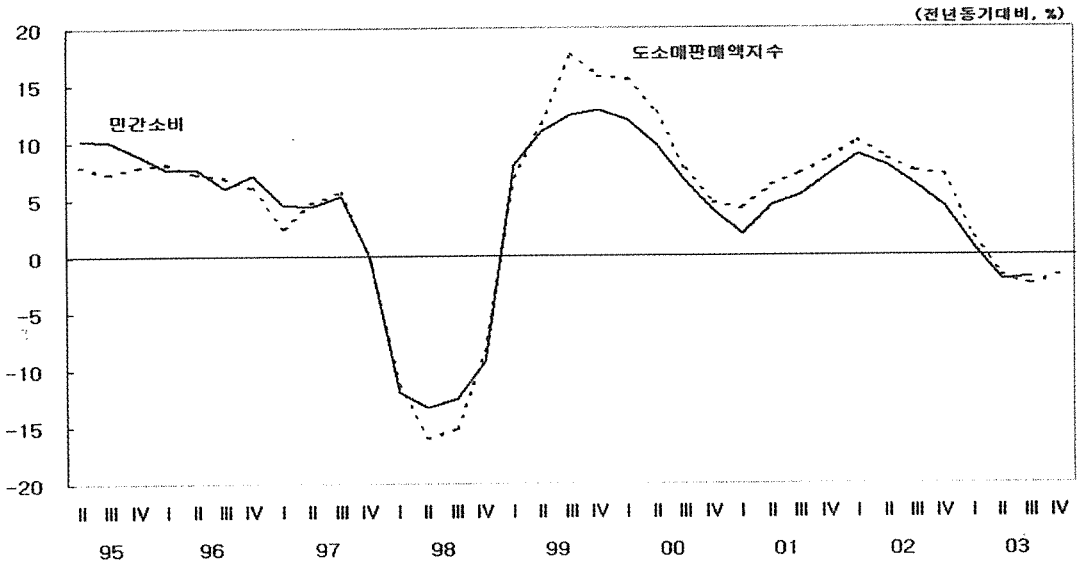
Ⅱ. 경기에 대한 진단

이러한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 증가세가 선진국 경기의 회복에 따라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년중 경기하강을 주도해 온 민간소비의 위축은 상당 부분 작년까지 지속되어 온 소비 급증세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지수 변화추이〉



주: 2003년 4/4분기 도소매판매는 10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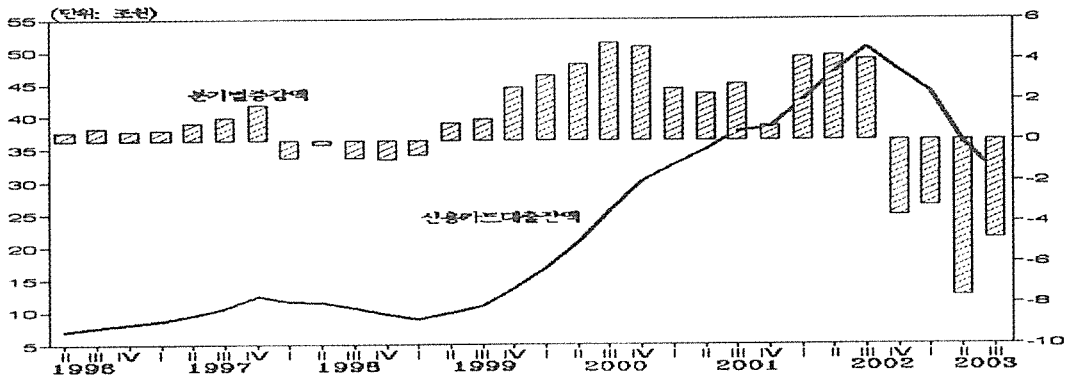
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0월중 도소매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여 전월(-2.9%)에 비해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계절조정기준으로도 전월대비 1.5% 증가하여 소비가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민간소비 위축의 한 원인이었던 가계신용의 조정은 금년중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신용

카드사의 가계신용은 작년 3/4분기말 50조원 내외에서 금년 3/4분기말에는 이미 2001년초 수준인 30조원 내외로 급격히 조정된 상태이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더불어 침체를 지속하던 설비투자도 수출증가세 확대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중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여 3/4분기의 -7.0%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

〈신용카드사 가계신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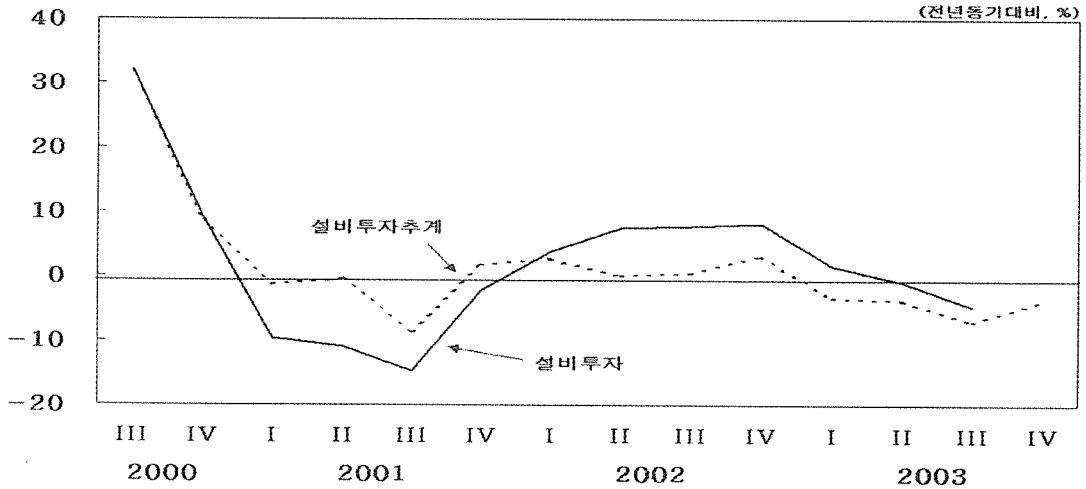


으며, 3/4분기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였던 기계류 수입액도 9~10월중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하여 설비투자가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도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8.3% 감소에서 9~10월중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로 반전하였다.

금년 동안 내수부문중 유일하게 호조세를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추계 추이〉



주: 2003년 4/4분기 설비투자추계는 10월 수치임.

[표 1]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

	비중 ^{b)}	2001	2002				2003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9월	10월	9~10월
건설투자	1.00	5.3	3.8	-4.6	6.0	3.3	8.1	7.2	7.8	-	-	-
(계절조정)		(-)	(-1.1)	(-2.9)	(8.3)	(-)	(3.5)	(-1.1)	(-2.1)	-	-	-
건물건설	0.53	9.6	16.0	10.7	11.1	14.4	14.0	12.8	13.9	-	-	-
기타건설	0.47	1.7	-6.6	-17.2	2.1	-6.7	-3.3	1.3	1.0	-	-	-
건설기성액	1.00	10.0	2.2	-2.8	8.0	3.7	16.0	15.8	18.1	14.2	16.9	15.5
공공부문	0.38	4.4	-10.2	-15.5	-10.8	-10.5	-6.0	0.0	8.3	5.2	14.4	9.8
민간부문	0.58	14.6	10.0	4.5	21.1	12.7	30.5	26.9	25.6	21.7	19.2	20.5
국내건설수주	1.00	22.1	10.1	6.6	12.7	21.3	-2.0	56.3	52.3	38.3	18.8	28.6
공공부문	0.29	49.5	-20.7	-0.5	-13.4	-7.6	-22.4	29.2	32.9	75.6	-5.1	35.2
민간부문	0.66	10.6	47.7	6.7	31.3	43.0	2.1	58.5	63.5	22.1	33.3	27.7
(제조업)	(0.05)	-5.2	51.5	-21.2	74.4	20.6	7.0	-16.2	132.0	94.6	23.2	58.9
건축허가면적	1.00	20.6	45.8	22.4	24.1	42.0	3.4	21.0	-2.0	-31.5	-27.2	-29.4
주거용	0.41	15.9	13.6	-6.0	8.7	19.8	-8.7	50.2	5.6	-38.5	-27.0	-32.7
상업용	0.36	37.1	123.1	68.7	41.0	92.6	-3.2	-0.6	-10.5	-32.0	-39.4	-35.7
공업용	0.11	16.2	24.5	9.3	20.6	13.5	21.2	-14.4	-5.5	-19.7	6.5	-6.6

지속하던 건설투자는 최근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선행지표들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10월중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15.5%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9~10월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28.6%와 -29.4%를 기록하여 3/4분기(52.3%, -2.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동안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최근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1월중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국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2.5%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전월대비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및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였고,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일본 및 동남아경제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Ⅲ.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는 3/4분기에 연율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실물지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용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04년 미국경제가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소비회복도 본격화되면서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및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의 성장률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경제의 경우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 상승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소비 및 투자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나 경제관련 심리지표들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2004년에는 2003년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2004년에 미국경제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과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2003년의 성장률보다 1%p 정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을 반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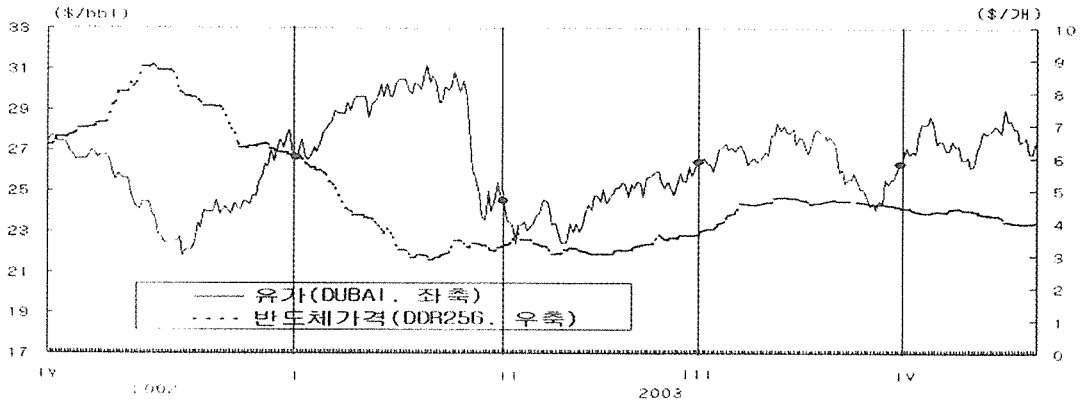
	2003	2004
세계경제	3.2	4.1
미국	2.6	3.9
유로	0.5	1.9
일본	2.0	1.4
중국	7.5	7.5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IMF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석유채고를 확충하면서 배럴당 26~28달러(두바이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으로 금년보다 낮은 배럴당 2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가격은 IT부문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의 과잉생산에 기인하여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내년의 연평균 반도체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경상수지 적자가 증가추세를 유지



하고 있어 향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엔화의 대미달러 강세도 동시에 진행되어 원/엔환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당분간 콜금리를 현재 수준(3.8%)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인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부는 2004년 예산을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으나,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2차 추경예산 3조원의 상당 부분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크게 긴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IV. 향후 전망

이러한 대내외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경제는 금년 4/4분기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내수의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2003년 연간으로는 2%대 후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200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증가 및 가동률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라 2004년에 9~10%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건설투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과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의 강화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증가율이 2% 내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금액)의 증가세는 2003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에 기인하여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3년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수입(금액)은 수출증가율이 2003년보다 다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3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지만 서비스·소득·

경상이전 수지의 적자폭이 금년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2004년에 70~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3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4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4년에 국제유가의 하락, 원화가치 상승, 임금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2003년보다 크게 낮은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가계신용의 급격한 조정 지속,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